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20일은 제 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며,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

본교는 장애/비장애학생의 장애 유무나 정도에 따른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며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현재 **학습지원반 1반의 특수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자녀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해보고 학습 지원반에 가는 친구들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몇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②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

이 곳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받습니다.

② 통합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일반학급에서 또래들과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학급에서 학생들은 나의 생김새나 장단점과 관계없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모두와 동등하게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게 합니다.

Q&A

엄마. 반짝이(특수교육대상학생)이가 수업시간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녀서 집중이 안돼요.

반짝이가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서 수업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야. 수업시간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고 반짝이한테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래.

반짝이도 별님이(자녀)처럼 새로운 교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연습중일거야. 다만 우리보다 적응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거니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구나.

엄마. 반짝이는 우리반에도 있고 학습지원반에도 가는데 가서 학습지원반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반짝이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곳이란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지. 하지만 모든 학생들도 울 수 있도록 활짝 문이 열려 있지.

엄마. 반짝이(특수교육대상학생)이는 왜 학교에서 항상 옆에 어른이랑 같이 다녀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거나 무언가해야 할지모르는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경우가 있어. 반짝이도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수업시간에 해야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몰라서 도움을 구하는 거야

엄마. 반짝이(특수교육대상학생)이는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야 해요?

장애가 있다고 별님이가 반짝이를 무조건 도와줘야되는건 아니야. 반짝이는 안경을 쓰는 사람처럼 다른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이란다.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보는건 어때니?

엄마. 반짝이(특수교육대상학생)이는 말을 잘 못해서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렇구나. 반짝이도 별님과 함께 말하고 싶어할거야. 그럼 반짝이가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는건 어떨까?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손동작을 해줘도 좋을 것 같구나.

고마운 친구, 안내견을 소개합니다



글/그림: 강윤민 (서울수명초등학교 교사)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의 날 관련 도서 추천



완두

다비드 칼리 /
세바스티앙 무랭 /
진선아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완두콩처럼 아주 작은 꼬마 소년 완두.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 완두지만 학교를 들어
나 다른 친구들보다 작아 혼자 놀아요. 작은 완두를 보고 걱정이
많은 선생님들과 달리 어른이 된 완두는 완두만이 할 수 있는 일
을 통해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완두는 커서 어떤 작업을 가지게 될까요?
작아서 더욱 특별한 완두의 성장 이야기

그냥 내 친구니까



그냥 내 친구니까

플로랑스 지벨레-드레스
피네이 /
브리짓 메르카디에 /
한울림 스페셜

아이는 창에서 방방 두는 걸 좋아해
둥글둥글 빗방울 불망 끄르 소라버 웃기, 1원 2개랑
숨사탕도 그걸 무엇보다도 아이는 단짝 친구 아더를 제일
좋아해,
'장애인' 난 그런 어른 말 몰라. 아이는 그냥 내 친구라고!
장애인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하는
그림책